

학술커뮤니케이션 전환 과정에 대한 이해 : 오픈 액세스 모델 적용 시도를 통한 고찰

What Factors Affect the Transition in Scholarly Communication?

정 경 희(Kyoung-Hee Joung) *

초 록

본 연구는 전통적인 학술커뮤니케이션 모델이 새로운 대안적인 모델로 전환되는 과정에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작용한다는 것을 하나의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의학 분야의 학술커뮤니케이션을 오픈 액세스 모델로 전환시키려는 과정을 추적하면서, 첫째, 의학 분야 학회들의 협의체에서 오픈 액세스형 DB에 수록될 학술지에 대한 질적 통제장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 둘째, 의학 분야에는 질적 통제장치를 가진 학술지 DB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 셋째, 각 학회들이 자체적으로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오픈 액세스 방식으로 학술지 원문을 서비스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은 국내 의학 분야에 오픈 액세스 모델을 적용하여 학술지 원문 DB를 구축하는데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오픈 액세스 등 대안적인 학술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적용하여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할 경우 그 모델이 적용될 사회가 처해 있는 다양한 맥락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ABSTRACT

This paper explains that socio-cultural contexts affect the transition in scholarly communication. Observing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open access model to the field of medicine in Korea, this paper found that the first, associations of medical societies considered a quality control system very important in the construction of an open access based fulltext DB, the second, there was a medical journal DB with a quality control procedure, and the third, many medical societies provided their journals fulltext to the public on their homepages. Consequently, this paper found that these factors had an effect on the process of transition in scholarly communication in the field of medicine in Korea.

키워드: 학술커뮤니케이션, 오픈 액세스, 디지털도서관, 사회정보학,
scholarly communication, open access, social informatics

-
- * 충북의대 초빙전임강사(libinfo@cau.ac.kr)
 - 논문접수일자 : 2005년 8월 19일
 - 게재확정일자 : 2005년 9월 19일

1.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되는 정보화사업, 그 일환인 디지털도서관 구축에 대한 관심은 주로 기술적인 문제나 재원확보에 집중된다. 또한 어떤 성공적인 모델이 있을 때 그것이 그대로 다른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대안적인 학술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적용하여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하는 경우 기술과 자본이 갖추어져 있다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새로운 대안적 모델은 그것이 적용될 사회가 처해 있는 다양한 맥락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 또한 그 맥락의 하나인 학술커뮤니케이션의 주체들 간의 이해관계도 새로운 모델의 적용과 그를 통한 디지털도서관 구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학술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적용하여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할 경우 그 모델이 적용될 사회의 맥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도서관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술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 특히 그 변화과정에 작용하는 요인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2004년 국내 의학 분야의 학술지 논문 20만건을 원문 DB로 구축하여 오픈 액세스

스 방식으로 제공하려는 계획(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4b)이 변경되어 결과적으로 서지데이터 16만건으로 구축(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5)된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학술커뮤니케이션의 변화 과정에 작용하는 요인들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룰 구체적인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의 의학 학술커뮤니케이션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국내 의학 학술커뮤니케이션의 전환을 위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셋째, 의학 학술커뮤니케이션 전환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무엇인가?

넷째, 이러한 요인들은 학술커뮤니케이션의 전환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러한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찾음으로써 새로운 학술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적용하여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하는 과정에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디지털도서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오픈 액세스 등의 대안적인 학술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논의 및 실체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주요사업추진실적, 한국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의편협)의 공문자료, 의학연구정보센터(MedRIC)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록된 사업설명회 자료 등 연구의 소재가 된 '의학학술정보공동활용체제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인터

1) <http://www.keris.or.kr/management/minfo_read.jsp>

넷에 공개된 공식 문서들과 문헌자료에 대한 내용분석으로 이루어졌다.

2. 오픈 액세스에 대한 논의와 국내 의학 분야 학술커뮤니케이션

본 장에서는 다음 장에서 전개될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선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안적 학술커뮤니케이션 모델인 오픈 액세스(open access)에 대한 논의를 간략히 살펴본다.²⁾ 또한 국내 의학 분야의 학술커뮤니케이션 현황을 학술논문의 생산자 그룹인 학회와 학술정보를 서비스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본다.

2.1 오픈 액세스형 학술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논의

BBB(Budapest-Bethesda-Berlin) 정의라고 불리는 오픈 액세스에 대한 세 개의 정의³⁾를 종합하면, 오픈 액세스란 법적, 경제적, 기술적 장벽 없이 전세계 이용자들이 출판된 즉시 온라인 상에서 정보를 복제, 전송, 배포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를 영구히 공공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도록 정보생산자와 이용자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오픈 액세스 모델을 적용한 학술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논의는 영국에서 1991년 Paul Ginsparg 이 설립한 arXiv.org의 성공적 운영, 미국에서 2000년에 설립된 PLoS(Public Library of Science)의 활동, 2002년 오픈 액세스에 대한 국제적 노력을 위해 결성된 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의 활동, 2002년 Lawrence Lessig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 발표, 2003년 Bethesda Statements on Open Access Publishing을 필두로 한 지속적인 오픈 액세스 지지 선언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그 논의와 활동이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즉, 정보공유적 학술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개념 모델을 제시하고, '정보공유적 라이선스'를 개발한 2002년 정경희의 논문, 2004년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정보공유 라이선스' 개발 및 공동 선포⁴⁾, 2004년 KISTI의 오픈 액세스 보고서⁵⁾ 발표, 가장 최근 KERIS의 오픈 액세스 관련 보고서⁶⁾ 발표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국내외의 논의 및 실제에서 주류는 기존의 학술커뮤니케이션 모델의 한계, 즉 비영리적인 의도로 생산된 학술논문의 저작권을 상업적인 출판사에 양도하고, 그 출판사가 대규모 원문 DB를 구축하여 도서관에 라이선스 체결 방식으로 제공할 경우의 문제를 지적하며, 앞으로 학술커뮤니케이션이 오픈 액세스 모델로 전환되

2) 이것으로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대신함.

3) 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Bethesda Statements on Open Access publishing, Berlin Declaration on Open Access to Knowledge in the Sciences & Humanities.

4) <<http://www.freeuse.or.kr/new/>>

5) 이상호, 황혜경, 김혜선, 정경희, 설문원. 2004. 『오픈액세스 기반 과학기술 지식정보자원 공유체제 구축에 관한 기초연구』. 서울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4.

6) 이나니, 김선미, 이미화. 2005. 『오픈액세스 환경에서의 학술·연구저작물 서비스를 위한 라이선스 관리 방안』. KERIS 이슈리포트, 서울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5.

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룹이다. 이 그룹의 선도 주자는 arXiv.org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open access 메일링 리스트⁷⁾에서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는 Stevan Harnad 교수와 매달 SOAN이라는 뉴스레터⁸⁾를 발간하며, 오픈 액세스에 대한 대중적 글쓰기 및 연설 등으로 운동을 펼치고 있는 Peter Suber 교수 등이다. 또한 국내에서 발표된 연구들도 오픈 액세스 모델이 학술논문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과 보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논지를 펴고 있다.(정경희, 2002; 황옥경, 2005; 이나니 등, 2005)

그러나 이러한 주류 논의에 제동을 걸고 있는 몇몇 연구들도 있다. 즉 새로운 학술커뮤니케이션 모델이 적용되는 과정에는 생각보다 매우 복잡한 사회·문화적 맥락들이 작용하므로 하나의 성공사례가 다른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대표주자는 Rob Kling 교수이다. 또한 Ingemar Bohlin 교수도 최근 전통적 학술 커뮤니케이션과 셀프 아카이빙 간의 커뮤니케이션 체제의 경쟁을 기술사회학(sociology of technology)적 렌즈를 통해 보아야 한다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예컨대, 2000년 발표한 Kling과 McKim의 논문은 arXiv.org의 성공 요인으로 물리학 분야에서 오랜 전통이었던 출판전배포기사 발간과 연구 중인 논문을 동료들과 전자미디어를 통해 돌려보던 관행을 들었다. 이 논문은 궁극적으로 학술 집단이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전통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수용하고 개발해 나가는데 영향을 미치므로, 기술의 사회적 형성(Social Shaping of Technology)이라는 관점

을 통해 학문 분야별로 다르게 존재하는 사회적 힘들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2003년 Kling은 의학 분야에서 일어난 오픈 액세스 논의를 다시 한번 분석하였다. 즉, 1999년 NIH(National Institute of Health)의 관장이었던 Harold Varmus는 arXiv.org 모델을 적용하여 의학 분야의 국가적 규모의 배포전기사 저장소(E-biomed)를 구축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제안은 1년여의 논의 과정을 거치며, 출판 후 일정한 시간차를 둔 뒤 논문을 저장소에 올리게 한 'PubMed Central'이라는 모델로 변경되었다. Kling은 이러한 변경 과정에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E-biomed가 피어리뷰를 거치지 않은 질이 낮은 논문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즉, 질적 통제 불가능, 대중과 일반의들에게 믿을 수 없는 임상정보들이 전달될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이었음을 밝혔다.

Bohlin(2004)은 상업적인 출판사에 의한 학술지의 전자적 배포와 새로운 모델인 셀프아카이빙간의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두 시스템간의 승부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보았다. Bohlin(2004)의 논문은 두 시스템간의 경쟁 및 변환과정을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SCOT, Social Construction of Technology)적 방법론을 통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후자 즉 오픈 액세스 논의에 약간의 제동을 걸고 있는 연구들의 연장선상에 있다. 즉, 한국의 의학 분야 학술커뮤니케이션이 처해 있는 맥락에서는 오픈 액세스 프로그램이 어떻

7) American-Scientist-Open-Access-Forum@LISTSEVER.SIGMAXI.ORG

8) SOAN(SPARC Open Access Newsletter) <<http://www.arl.org/sparc/soa/>>

게 적용되었는지를 하나의 사례를 통하여 고찰하고 이로부터 학술커뮤니케이션의 전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끌어내고자 하였다.

2. 2 국내 의학 분야 학술커뮤니케이션 현황

대략 300여종이 넘는⁹⁾ 국내 의학 분야의 학술지 논문에 대한 서지/초록(일부는 원문제공) DB는 대한의학회 산하의 편협에서 운영하는 KoreaMed, 한국과학재단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MedRIC에서 운영하는 Kibase, KERIS로부터 일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의도협)에서 운영하는 MEDLIS 등이 있다. 이들 비영리기관의 DB 외에 KISS, DBPIa¹⁰⁾ 등 영리기관에서 운영되는 원문 제공 DB가 있다. 아래에서 비영리기관의 DB와 이를 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한다.

대한의학회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의 분과학회협의체이다. 이 학회는 의학발전과 각 회원학회의 지원 및 상호간의 유대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직체이며, 회원학회의 지원 및 교류, 의학 학문성과의 국제교류, 학술지 발간 등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다.¹¹⁾

2005년 현재 대한의학회 회원학회는 137개이다.

의편협은 대한의사협회 의학회 회칙¹²⁾에 근거하여 설치된 4개 협의회 중 하나로 1996년 창립되었다. 2004년 6월 현재 137개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이 중 대다수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이다.¹³⁾ 의편협은 의학 학술지의 편집, 발간, 편집규정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국내 의학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¹⁴⁾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1997년부터 의편협의 “국내 의학학술지 평가사업”을 통하여 선정된 의편협 회원 학회 학술지의 1997년 이후 논문의 영문서지 및 초록정보 DB인 KoreaMed¹⁵⁾를 운영하고 있다. 2005년 7월 현재 113종의 학술지가 KoredMed에 등재되어 있으며, 총 103,000건의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의편협은 1997년 이전 데이터를 수용하기 위하여 KoreaMed Retro라는 DB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학회 홈페이지에 있는 원문과 KoreaMed 데이터와 링크를 걸어 원문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KoreaMed LinkOut 서비스¹⁶⁾를 제공하고 있다. 즉, KoreaMed는 특정 년도에 한정되지 않고, 의편협의 평가를 거친 학술지들의 영문서지 및 초록과, 원문에 대한 링크아웃을

9) 2005년 대한의학회의 한국의학학술지 인용색인정보 개발사업단에서 발간한 『KoMCI 2004 한국의학학술지 인용정보』는 KoMCI 2004에서 색인한 논문이 인용한 학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KoMCI 2004의 수록 대상이 된 학술지 105종, 기타 의학 학술지 222종, 의학 관련 학술지 653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에서 대한의학회의 회원 학회인 137개 학회에서 발간한 학술지가 의학분야의 핵심 학술지라고 할 수 있다.

10) KISS는 KSI((주)한국학술정보)에서 판매하는 학술지 등 학술정보 원문 제공 DB명칭이다. 2005년 8월 현재 KISS에 수록된 대한의학회 회원학회의 학술지는 45종이다. DBPIA는 누리미디어에서 판매하는 학술지 원문DB 명칭이다. 2005년 8월 현재 DBPIA에 수록된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학술지는 3종이다.

11) 대한의사협회 의학회 회칙 제1조~제2조

12) 제28조 (협의회) ① 본회에는 필요에 따라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13) 137개 단체 중, 대한의학회 회원학회가 109개 학회, 의과대학이 10개, 기타 18개 학회이다.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소식』 제24호)

14)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회칙 제2조 (목적)

15) 코리아메드 운영규정 <<http://www.kamje.or.kr/bylaws.html>>

제공하는 DB이다.

MedRIC은 1997년 한국과학재단 특성화장려 사업으로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전문연구정보센터의 하나이다. MedRIC은 의학 분야 연구정보를 생성 및 가공하여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보건의료료를 포함한 의학 분야 학술지의 서지 및 초록 DB인 KMbase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원문도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¹⁷⁾ KMbase에 수록된 학술지는 총 708종이며, 이중 일부는 원문이 제공되거나 학회홈페이지 원문으로 링크되어 있기도 하다.

의도협은 전국의학도서관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의학정보 자료의 상호대차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의도협은 KERIS의 협조하에 회원기관과 공동으로 MEDLIS를 운영하고 있다. MEDLIS는 회원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학술지를 상호 활용하기 위한 종합목록 시스템인 동시에 국내 의학 학술지에 대한 색인 및 초록 DB이다.

KERIS는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것을 목적¹⁸⁾으로 1999년 설립된 국립 기관이다. KERIS는 의학 분야 학술정보 관리 사업을 위하여 1999년 서울대학교에 7.6억 원을 지원하고, MEDLIS를 개발한 바 있다. 또한 2003년 의도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MEDLIS를 개선 및 운영하도록 지원하였다. 아울러 2003년도에는 의도협 회원기관이 의학 학술지 기사색인을 분담구축 하도록 4천만원을 지

원한바 있으며, KMbase 데이터 18만건을 변환하여 MEDLIS에 추가하기도 하였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4b)

앞서 언급한 각 현황을 다음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내 의학 분야에서 핵심적인 학술지를 출판하는 각 학회들을 묶어주는 커뮤니티로 대한의학회가 존재한다. 둘째, 대한의학회 산하에 KoreaMed를 운영하는 의편협이라는 조직이 있다. 셋째, KoreaMed에 등재된 대다수의 학술지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의 것이다. 넷째, MedRIC도 의학분야 학술지에 대한 색인, 초록 DB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원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다섯째, 의도협 역시 상호대차를 위하여 의학 학술지 색인 및 초록 DB를 운영하고 있다. 여섯째, KERIS는 의학분야 정보제공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의도협과 협력관계를 통하여 MEDLIS를 지원하고 있으며, MedRIC과도 연관을 맺고 있다.

3. 의학 분야 학술커뮤니케이션의 전환 계획과 그 전개 과정 및 결과

3. 1 오픈 액세스형 국내 의학논문 원문 DB 구축 계획

3.1.1 원문 DB 구축 계획

2004년 2월 개최된 '의학 학술 정보화사업 활

16) KoreaMed LinkOut 서비스가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의편협 소식지인 『대한의학학술편집인협의회소식』 2002년 8월(제18호)호에 KoreaMed 시스템을 개선하여 LinkOut을 구현하였고, 현재 4종의 학술지에 대한 서비스가 진행중이라고 밝혀진 것으로 보아 2002년 8월경부터 KoreaMed LinkOut 서비스를 통하여 원문제공 서비스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2005년 8월 현재 링크아웃 학술지는 40종이다.

17) 의학연구정보센터 사업소개 <<http://www.medic.or.kr/About/Index.asp?mCode=About&Code=Business>>

18) 교육정보원법 제1조 (목적)

성화를 위한 세미나¹⁹⁾(이하 '2004년 2월 세미나')에서 KERIS는 한국전산원에서 추진하는 지식정보관리사업의 하나로 2004년도에 의학 학술지 기사색인의 분담 구축과 의학 분야 학술지의 원문 DB를 구축하는데 10억 규모의 예산을 신청 완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사업은 대한의학회, 의도협, KERIS, MedRIC 등 4개 기관이 협력하여 이루어질 계획이며, 2004년에 의학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할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KERIS는 2004년 4월, 한국전산원에 2005년도 의학 분야를 별도로 지정 신청하여 1차년도 30-50억, 향후 5개년 간 100-120억 규모로 예산을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2005년 4월에 "국가의학정보통합시스템"(가칭)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2005년 12월에는 1차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4a)

2004년 6월 16일 개최되었던 '의학학술정보 공동 활용체제 구축 사업²⁰⁾ 설명회'(이하 '2004년 6월 설명회')자료²¹⁾에는 사업목표가 보다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즉, KERIS는 디지털화되지 않은 국내 의학 학술지 논문을 디지털화할 것이며, 본 사업에 학회를 참여시켜 의학 학술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할 예정

이었다. 이를 통하여 국내 의학 학술지 원문의 통합 검색서비스 및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2004년도 계획은 한국전산원 국가학술 DB 구축 4차 사업비²²⁾를 활용하여 의학 논문 20만건 정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2004년 6월 설명회' 자료에는 '의학 분야 학술지 원문DB 구축 사업'(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4b) 이라는 제목으로 사업의 목적과 추진경과 및 2003년도 의학학술정보 공유 사업, 향후 추진 방향 등이 설명되어 있다. 발표 자료의 제목이 '원문 DB'구축 사업인 것으로 보아 본 사업이 원문을 DB화 하려는 것이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의 목적을 의학학술정보 공유 및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의학 분야 연구자들이 학술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서 현재 국내 의학 학술정보가 MedRIC, 의편협, 보건연구정보센터, 민간업체, 개별 의학회 등에서 각각 구축되어 유/무료로 서비스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분산된 국내 의학 학술정보를 통합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들고 있다. 또한 의학 학술정보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로 삼고 있다. 즉, 개별 연구자들의 성과를 민간 업체가 유료화하여

19) 이 세미나에서 대한의학회는 주최기관, 의학연구정보센터는 주관 기관,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후원기관이었다.
 20) 본 사업에 대한 명칭은 '의학학술정보 공동 활용체제 구축 사업', '국가학술연구DB 구축사업', '의학학술지 원문 DB 공동활용체제 구축', '국내 의학 저널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등 자료마다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이한 명칭을 대신하여 '의학논문 원문 DB 구축사업'으로 부른다.
 2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의학연구정보센터, 2004. "국가 학술연구 DB 구축 사업: 의학 학술정보 공동 활용체제 구축: 참여 안내 및 절차", 2004. 5. "국내 의학 저널 원문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 관련 회의 자료" p.5 2004.5.27 [공지사항 첨부파일] [cited 2005.7.28] <<http://www.medric.or.kr/의학학술정보공동활용체제구축사업.zip>>
 22) 한국전산원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하나로, 국가학술연구DB구축 등 30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470억을 투자하여 총 2억건을 디지털화 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2004년도 주요사업실적 [cited 2005.8.2] <<http://www.nca.or.kr/download/2-2-D-1.pdf>>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는 학술정보의 적극적 활용과 인용의 기회를 제한시키므로 저자 및 학술연구자에게 불리한 구조이며, 따라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4b)

이를 종합하여 ‘의학논문 원문 DB 구축사업’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겠다. 즉, 다양한 비영리기관 혹은 영리업체에 의하여 무료 혹은 유료로 서비스되고 있는 국내 의학학술정보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의학 학술커뮤니케이션 모델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결국 본 사업이 앞서 논의한 오픈 액세스형 학술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적용하려는 시도였음을 알 수 있다.

3.1.2 오픈 액세스 모델 지향

‘의학논문 원문 DB 구축사업’이 오픈 액세스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은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각 학회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최된 자문회의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²³⁾ 회의자료에는 국내 의학 학술지 원문 DB 구축의 목표를 “전세계 모든 의학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의학저널에 실린 논문을 인터넷 상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국내 의학 저널을 디지털화하여 통합 DB를 구축”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업의 구체적 내용에서 국내 의학 학술지의 원문을 DB화 하여 ‘공개적 접근(open access)’을 제공하

고, 학술지에 대한 저작권은 학회 혹은 저자에게 있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2004년 6월 설명회’ 자료에 첨부된 업무협약서²⁴⁾의 내용을 통해서도 ‘의학논문 원문 DB 구축사업’이 오픈 액세스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협약서 제3조 ‘협약의 내용’ 제2항과 3항은 다음과 같다.

② “학회”는 “정보원”이 DB구축 대상자료에 대한 디지털화 및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해결한 후, “정보원”이 DB 구축 대상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네트워크 상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정보원”은 비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디지털화한 자료를 복제, 전송, 배포의 방식으로 네트워크 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3.1.3 참여 기관 및 구축대상 자료 선정기준

‘의학논문 원문 DB 구축사업’이 오픈 액세스 모델을 지향했다는 것과 더불어 또 한가지 지적해 둘 것은 DB 구축 대상 학술지를 선정하는 특별한 기준이 없었다는 점이다. ‘2004년 6월 설명회’ 안내 공고²⁵⁾를 보면, 설명회 참여 대상을 대한의학회 및 의편집 산하 의학회, 기타 국내 의학회들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본 사업이 대한의학회 및 의편집 회원 학회를 핵심 대상으

2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의학연구정보센터, 2004. “국내 의학 저널 원문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 관련 회의 자료” 2004.5.27 [공지사항 첨부파일] [cited 2005.7.28] <<http://www.medric.or.kr/Down/BoardNotice/의학학술정보공동활용체제구축사업.zip>>

2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의학연구정보센터, 2004. “국가 학술연구 DB 구축 사업: 의학 학술정보 공동 활용체제 구축: 참여 안내 및 절차”. 2004. 5. “국내 의학 저널 원문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 관련 회의 자료” 중 업무협약서

25) <<http://www.medric.or.kr/Notice/Index.asp?mCode=Notice&sCode=Notice&Action=View&Gubun=Notice&Idx=411&Page=1&Search=&SearchString=>>>

로 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의학 분야 학회들도 모두 참여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2004년 5월 24일 공지된 “2004년도 국가학술연구 DB구축사업(4차) 참여 신청(의학)”²⁶⁾을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공지에는 “학술적 가치가 있는 의학 관련 학회생산물의 디지털화 지원”, “이번 DB 구축 지원 신청은 학회지, 논문지(집), 학술대회 자료집 및 연구보고서 등”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지원대상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유가 가능하도록 저작권이 관리된 자료”라고 밝히고 있다. 즉, 원문 구축대상이 되는 학술지를 학술적 가치가 있으며, 저작권이 관리된 자료라고 제한하고 있을 뿐, 어떤 평가절차를 거친다는 조건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2 ‘의학논문 원문 DB 구축 사업’ 전개 과정

3.2.1 학회의 참여 유도를 위한 노력들

KERIS는 이러한 사업에 각 학회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2004년 2월 세미나의 후원기관이었으며, 여기서 의학 정보 유통 활성화를 위한 KERIS의 지원 방향을 설명한 바 있다. 또한 2004년 3월 23일자로 대한의학회에 사업 참여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 공문은 대한의학회의 130여개 회원 학회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2004년 5월 28일자로 대한의학회 및 의협 협 소속 150여개 학회에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

어 2004년 6월 4일에는 230여개의 국내 의학회 및 대학 부설 의학 관련 연구소에 사업참여 및 설명회 안내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였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4b)

또한 KERIS는 각 학회의 사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MedRIC과 함께 2004년 4월~5월 중에 각 의학 관련 학회 이사들을 대상으로 원문 DB 구축에 관한 자문회의를 연차적으로 개최하였다.²⁷⁾

3.2.2 대한의학회의 관심

대한의학회가 KERIS의 3월 23일자 협조요청 공문(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4b)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식문건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대한의학회의 ‘의학논문 원문 DB구축 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어떠했는지 정확히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2004년 2월 세미나’의 초청의 글²⁸⁾을 통하여 의학 분야의 원문구축 사업에 대한 대한의학회의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초청의 글을 일부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의학논문은 의과학자들의 연구 및 교육, 진료를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정보자원입니다. 따라서 국내의 각 학회에서는 수십년 동안 논문집을 출판하여 의과학 연구자들에게 제공하여 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논문의 원문을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과학의 각 분야간 학제적 연구

26) <http://www.riss4u.net/etc/notice/notice_view.jsp?id=3826&field=subject&field_value=&page=6>

2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의학연구정보센터, 2004. “국내 의학 저널 원문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 관련 회의 자료” 2004.5.27 [공지사항 첨부파일] [cited 2005.7.28] <<http://www.medric.or.kr/Down/BoardNotice/의학학술정보공동활용체계구축사업.zip>>

28) 본 초청의 글은 대한의학회 회장 고윤웅이 보내는 것으로 되어있다.

로 인하여 의학자들이 논문을 통합적으로 검색하고 원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개별 학회의 노력만으로는 국내 의학 논문의 원문을 통합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기술적, 경제적, 관리적 차원에서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의학회는 국가적 차원에서 학술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전국의 의학도서관들의 협의체로서 의학학술지종합정보시스템(MEDLIS)을 구축한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KMLA), 의학 분야의 연구정보를 수집·개발·보급하고 있는 의학연구정보센터(MedRIC)와 연계하여 국내 의학논문의 정보화사업 추진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하여 대한의학회는 의학 분야의 학술지 원문 DB가 통합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하여 국내 ‘의학논문의 원문 DB 구축사업’에 대하여 검토할 계획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2.3 의편협의 입장

또 하나 대한의학회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2004년 6월 11일 의편협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학학술지 원문 DB 공동 활용 체제 구축에 관한 본회의 입장”이라는 공지사항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의편협은 대한의학회 산하의 4개 협의회 중 하나로서 대한의학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이다.

의편협은 KERIS의 사업에 대하여 각 회원학

회에 공문²⁹⁾을 발송하여 의편협의 KERIS 사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³⁰⁾하였다. 회원 학회에 보낸 공문은 “한국 학술진흥재단 등 영리 및 비영리기관에서 학회의 학술지 원문을 요구하여 개별 학회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외부기관에서 학회의 학술지 원문정보를 요구하며 DB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대처하는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침에 앞서 공문에서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널리 읽히고 인용될 수 있으므로 학술지의 통합정보 서비스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1997년부터 의편협이 학술지 평가 작업을 통하여 우수한 학술지를 KoreaMed에 등재하고 있고, 한국학술진흥재단도 이러한 평가사업을 통하여 정보화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각 학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첫째, 옥석이 가려지지 않은 DB는 진정한 DB의 기능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술지만이 DB화되는 장치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둘째, 저작권에 대한 사항을 잘 확인하여, 가능하다면 학회가 저작권을 계속 확보하도록 한다. 각 학회의 형편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사용 목적 이외 다른 곳에 쓰지 않는다는 협약서 등 저작권 문제 및 사용 용도에 대하여 한계를 명확히 하고 대응을 하여야 할 것이다.”

공문의 내용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의편협이 의학학술지 논문의 원문을 통합적으로

29) <http://www.kamje.or.kr/newsletter/2004_12의학학술정보제공에관련.hwp>

30) <http://www.kamje.or.kr/notice_20040611.html>

DB화하여 서비스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둘째, 평가기관을 통하여 수준을 인정받은 학술지만이 통합 DB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셋째 학회가 저작권을 확

보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밝힌 사업의 경과내용을 발생시점순으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의학논문 원문DB 구축 사업' 진행 과정

| 날 짜 | 진 행 내 용 | 인 용 출 처 |
|------------|---|---|
| 2004.2월 이전 | KERIS: 한국전산원의 지식정보관리사업에 의학 학술지 기사색인의 분담 구축과 의학 학술지 원문DB 구축을 위해 10억 예산 신청 완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4a) |
| 2004.2.24 | 의학학술정보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주최: 대한의학회, 주관: 의학연구정보센터 후원: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KERIS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4a) |
| 2004.3.23 | KERIS가 대한의학회에 사업참여 요청을 위한 공문 발송 - 대한의학회 회원 130여개 의학회의 '의학논문 원문DB 구축사업' 참여에 대한 협조요청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4b) |
| 2004.4.17 | MedRIC에서 의학 분야 저널 통합 DB 구축에 대한 국내 의학 분야 연구자들의 견해 조사(설문조사) | < http://www.medic.or.kr/Down/BoardNotice/의학학술정보공동활용체계구축사업.zip > |
| 2004.4~5 | 국내 의학저널 원문 DB 구축 사업 관련 자문회의 10회 개최 | http://www.medic.or.kr/Down/BoardNotice/의학학술정보공동활용체계구축사업.zip |
| 2004.5.24 | KERIS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2004년도 국가학술연구 DB 구축사업(4차) 참여 신청(의학)' 공지 | < http://www.riss4u.net/etc/notice/notice_view.jsp?id=3826&field=subject&field_value=&page=6 > |
| 2004.5.28 | 사업참여 및 설명회 안내에 관한 공문 발송 - 대한의학회 및 의협 소속 150여개 학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4b) |
| 2004.5.31 | 의학연구정보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의학학술정보 공동 활용 체계 구축 사업 설명회 안내(6월 16일)" 공지 | < http://www.medic.or.kr/Notice/Index.asp?mCode=Notice&sCode=Notice&Action=View&Gubun=Notice&Idx=411&Page=1&Search=&SearchString= > |
| 2004.6.4 | 사업참여 및 설명회 안내에 관한 공문 발송 - 국내 의학회 및 대학 부설 의학관련 연구소 230여개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4b) |
| 2004.6.11 | - 의협에서 회원학회 학술지 편집인에게 "의학학술지 원문 DB 공동 활용체계 구축에 관한 본회의 입장" 공문 발송 - 의협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하여 공문 공개 | < http://www.kamje.or.kr/notice_20040611.html > |
| 2004.6.16 | 의학 학술정보 공동 활용체계 구축 사업 설명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의학연구정보센터 공동 주최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4b) |

3. 3 '의학논문 원문 DB 구축 사업' 결과

KERIS의 2005년 3월 『주요사업추진 실적 보고』(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5)³¹⁾ 자료에는 의학학술정보 공동활용체계 활성화 지원사업 결과로 국내 의학 분야 학술지 기사색인 16만건을 구축하였다는 사항이 보고되어 있다.

본 원문구축 사업의 결과물은 KERIS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MEDLIS³²⁾를 통하여 서비스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즉, MEDLIS 홈페이지의 '전국대학소장자료' 메뉴 아래 '국내의학학술지원문검색' 메뉴를 추가하여 2004년 사업결과물인 의학 분야 학술지 원문을 제공할 예정이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4b) 그러나 2005년 8월 현재 MEDLIS에는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정리하자면 의학 분야 학술지 원문을 20만여건 디지털화하여 오픈 액세스 방식으로 서비스하려는 계획은 결과적으로 16만건의 의학 학술지 기사색인을 구축하는 것으로 대체되어 완료되었다. 즉, 학회 혹은 연구자 등의 저작권자로부터의 허락과 참여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는 원문DB 구축사업이 저작권자의 허락으로부터 자유로운 - 학회 및 연구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기사색인 DB를 구축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어떠한 요인들이 학회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여 학술지의 원문을 오픈 액세스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초기의 계획을 변경시키게 만들었을까? 다음 장에서 이러한 변경과정에 작용한 요인들에 대하여 분석한다.

4. 의학 학술커뮤니케이션 전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 1 질적 통제의 문제

앞서 오픈 액세스에 대한 국내의 논의를 소개하며, 주류 논쟁에 계통을 걸고 있는 논의로 E-biomed에서 PMC로 변경되는 과정을 고찰한 Kling(2004)의 연구를 소개하였다. 즉, E-biomed에서 PMC로의 변경에서 주된 쟁점은 피어리뷰라는 질적 통제 과정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일반인과 임상자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의료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의학 분야 학술커뮤니케이션의 전환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작용한 '질적 통제'의 문제는 국내의 '의학논문 원문DB 구축사업' 과정에서도 작용하였고, 이것이 결국 원문DB 구축이라는 원래의 계획을 변경시켜 서지DB를 구축하는 결과를 만드는 데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진다.

'의학논문 원문DB 구축사업'에 대하여 의평협이 회원학회에 보낸 공문에서 의평협은 의학논문의 통합DB가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각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학회가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수한 논문을 걸러내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학논문 원문DB 구축사업'은 의학논문에 대한 통합DB를 구축하는 것이었으며, 협약서 제3조³³⁾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저작권을 학회로부터 이양받지 않는 것이었다.

31) <<http://www.keris.or.kr/management/minfo.jsp>>

32) <<http://medlis.riss4u.net>>

33) 제3조의 ② "학회"는 "정보원"이 DB구축 대상자료에 대한 디지털화 및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해결한 후, "정보원"이 DB구축 대상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네트워크 상에서 서비스할

그러나 본 사업은 DB 구축대상이 되는 학술지를 선별하는 과정은 없었다. 따라서 오랫동안 의학 분야 학술지의 평가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서 선정된 학술지만을 DB로 구축한 KoreaMed를 운영해온 의편협이 ‘의학논문 원문DB 구축사업’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각 회원학회에 본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지 않은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이러한 의편협의 시각은 대한의학회의 시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며³⁴⁾, 의학 분야의 대다수 학회를 회원으로 가지고 있는 두 학회의 본 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각 학회의 본 사업 불참여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4. 2 연구자 집단이 운영하는 학술지 DB

‘의학논문 원문DB 구축사업’ 계획의 변경과정에서 작용한 질적 통제 장치의 부재라는 요인 이외에 본 사업의 변경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의편협은 본 사업에 관한 입장을 밝힌 공문을 각 회원 학회 학술지 편집인에게 발송하면서, 별첨 자료로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통합 정보 유통 현황 및 저작권에 대해’라는 자료를 함께 발송한 바 있다.³⁵⁾ 이 글에서 ‘대한의학회의 의학학술정보 제공 방향’이라는 제목 하에 기술된 내용을 일

부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대한의학회 산하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 학술지 평가 사업과 함께 시도하는 KoreaMed가 의학 분야에서 익숙한 PubMed 형식과 절차를 따르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잘 수행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나라 의학학술 문헌의 영문 서지사항 및 초록 정보는 KoreaMed를 관문으로 하여 전세계 인류 및 의사를 대상으로 지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므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에 아직 가입하지 못한 학회는 가입하여 학술지 평가를 받은 후에 KoreaMed에 모두 등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회원 단체의 학술지를 모두 전세계에서 찾아 볼 수 있기를 바란다.(이하 생략)”

이 글을 통하여 의편협의 KoreaMed 사업이 곧 대한의학회의 사업이라는 것과 대한의학회는 향후 지속적으로 KoreaMed를 회원 학회의 학술지 논문을 구축하는 DB로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KoreaMed가 의편협의 평가를 거친 학술지들에 대한 영문서지 및 초록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링크아웃을 통한 원문제공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의편협은 KoreaMed Journal LinkOut Policy³⁶⁾를 통하여 링크아웃

수 있도록 한다. ④ “정보원”은 저작권을 가진 저자가 디지털화 및 서비스 대상 자료 중 해당 저자의 논문에 대해 서비스 중단 및 자료의 삭제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논문을 즉시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서비스를 중단한다.

34) 의편협은 대한의학회 산하 협의회 중 하나로서, 2004년 당시 의편협 회장과 부회장이 각각 대한의학회의 간행이사과 간행위원을 맡고 있었음을 두 기관 임원/위원명단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중 100여개의 학회가 의편협의 회원학회로 가입되어 있다.

35) 허선. 2004.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통합 정보 유통 현황 및 저작권. [cited 2004.6.23] <<http://www.kamje.or.kr/newsletter/의학학술지정보유통및저작권.hwp>> 이 글은 2004년 6월 발간된 대한 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 소식지 제24호에도 게재되었다.

36) <http://www.kamje.or.kr/linkout_policy.html>

이 학회와 KoreaMed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시스템으로 학술지의 원문 이용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KoreaMed에 링크아웃하는 학술지의 수는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국내 의학 분야 학술지에 대한 원문을 일괄적으로 검색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이미 가동되어 체계적으로 확장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의학논문 원문DB 구축사업'은 그 방식은 상이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이 원문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하다고 보이는 KoreaMed라는 사업과 다소간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3 각 학회 홈페이지의 원문 제공

서구에서 오픈 액세스 모델에 대한 논의는 비영리적 목적으로 생산된 학술논문을 출판사에서 영리적 목적으로 DB화 하고 이를 고가로 도서관 등에 라이선스 체결방식으로 제공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학술커뮤니케이션 모델은 연구자들이 학술논문에 쉽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시키고, 이로써 연구자들의 의도인 논문의 이용과 인용의 확대를 제한시키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모순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오픈 액세스 모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들은 상업적인 출판사에 이양했던 저작권을 연구자 혹은 학회가 보유하고 학술논문을 많은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겠

다는 것이 그 논의의 핵심이었다. 다시 말해, 미국과 영국 등에서 오픈 액세스 모델에 대한 논의와 실체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은 상업출판사에 의한 학술논문의 영리화가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핵심에는 학술논문의 생산자인 연구자들이 있었다.

국내의 학술커뮤니케이션 환경은 서구의 환경과 다소 다르다. 서구에서 오픈 액세스 모델 추진 동인으로 작용했던 학술지의 상업화가 그다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5년 8월 현재 대한의학회의 회원학회 중 105개의 학회가 홈페이지에서 학술지의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³⁷⁾. 따라서 오픈 액세스 모델을 지향했던 '의학논문 원문DB 구축사업'이 이미 학술지의 원문을 자신들의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학회들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구에서 오픈 액세스 모델을 통한 학술커뮤니케이션의 전환을 학술논문의 저작자들(그리면서 저작권을 출판사에 빼앗긴)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것에 비하여 '의학논문 원문DB 구축사업'의 주체는 정보서비스기관이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의학 분야의 학술논문을 통합적 원문 DB로 구축하여 오픈 액세스 방식으로 서비스하려는 계획이 서지DB로 구축된 과정을

37) 물론 각 학회가 원문을 제공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다. 즉, 학술지 원문을 모든 이용자에게 공개한 학회는 55개(이 중 9개 학회는 한국학술정보(KSI)을 통하여 원문 서비스를 하고 있으면서 학회 홈페이지에 KSI 데이터로 링크아웃을 걸어 완전 공개하고 있다), 학회원에게만 공개한 학회는 39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원문을 볼 수 있도록 한 학회가 11개 학회이지만, 이중 8개 학회는 의사면허를 가진 이용자들만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다.

추적하였다. 초기의 계획은 학회가 인쇄형태로 학술지를 출판하고, 도서관 혹은 개별 연구자들이 학술지를 구독하는 전통적 방식의 학술커뮤니케이션을 인터넷을 매개로 한 오픈 액세스형 학술커뮤니케이션 모델로 전환시키려는 시도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학술커뮤니케이션의 전환은 그것이 적용될 사회가 처해 있는 다양한 맥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국내 의학 분야의 학술커뮤니케이션의 전환 과정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첫째는 학회들의 협의체는 통합 DB에 수록될 학술지에 대한 질적 통제장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 둘째는 기존에 연구자집단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의학 학술지 DB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 셋째는 학술정보를 생산하는 그룹인 학회들이 인터넷상에서 학술지의 원문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궁극적으로 어떤 지역과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던 새로운 학술커뮤니케이션 모델이 동일하게 다른 지역의 다른 분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따라서 오픈 액세스 등의 새로운 모델에 대한 논의와 적용은 그것이 적용될 분야의 학술커뮤니케이션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본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Bohlin, Ingemar. 2004. Communication Regimes in Competition: The Current Transition in Scholarly Communication Seen through the Lens of the Sociology of Technology. *Social Studies of Science*, 34(3): 365-391.
- Kling, Rob and Geoffrey MacKim. 2000. Not Just a Matter of Time: Field Differences in the Shaping of Electronic Media in Supporting Scientific Communication. *JASIS*, 51(14).
- Kling, Rob, Lisa B. Spector and Joanna Fortuna. 2004. The Real Stakes of Virtual Publishing: The Transformation of E-biomed into PubMed Central. *JASIST*, 55(2): 127-148.
- Liu, Zimming. 2003. Trends in Transforming Scholarly Communication and Their Implications. *Information Processing and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39(6): 889-898.
- 대한의학회 한국의학학술지 인용색인정보 개발사업단. 2005. 『KoMCI 2004 한국의학학술지 인용정보』. [cited 2005.7.20] <<http://komci.kams.or.kr/>>
- 이나니, 김선미, 이미화. 2005. 『오픈액세스 환경에서의 학술·연구저작물 서비스를 위한 라이선스 관리 방안』, KERIS 이슈리포트,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5.
- 이상호, 황혜경, 김혜선, 정경희, 설문원. 2004. 『오

- 픈엑세스 기반 과학기술 지식정보자원 공유 체제 구축에 관한 기초연구』, 서울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4.
- 정경희, 2002. 정보공유적 모델 기반의 학술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9(4) : 383-399.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4a. 의학학술정보 공유체제 구축. 『의학 학술 정보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서울의대 압연연구소 2층 이견회홀. 2004.2.24. pp. 16-21.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4b. 의학 분야 학술지 원문 DB 구축 사업. 『의학학술정보 공동 활용체제 구축 사업 설명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7층 대회의실. 2004.6.16.
- 허선, 2004.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통합 정보 유통 현황 및 저작권 『대한 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 소식』, 제24호, 2004.6. pp.1-2.
- 황옥경, 2005. 국내 도서관에서의 자유이용(Open Access) 학술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방안. 『정보관리학회지』, 22(2) : 253-273.
- 2004_12 의학 학술 정보 제공에 관한.hwp>
- 의학연구정보센터. “의학학술정보 공동 활용체제 구축 사업 설명회 안내(6월 16일)” [공지사항]. 2004.5.31. [cited 2005. 7.28] <<http://www.medic.or.kr/Notice/Index.asp?mCode=Notice&sCode=Notice&Action=View&Gubun=Notice&Idx=411&Page=1&Search=&SearchString=>>
- 의학연구정보센터. “의학학술정보 공동 활용체제 구축 사업 참여 및 신청 안내” [공지사항]. 2004.5.31. [cited 2005. 7.28] <<http://www.medic.or.kr/Notice/Index.asp?mCode=Notice&sCode=Notice&Action=View&Idx=410&Gubun=Notice>>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의학연구정보센터. 2004. “국가 학술연구 DB 구축 사업: 의학 학술정보 공동 활용체제 구축: 참여 안내 및 절차”. 2004. 5. “국내 의학 저널 원문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 관련 회의 자료” 2004.5.27 [공지사항 첨부파일] [cited 2005.7.28] <<http://www.medic.or.kr/Down/BoardNotice/의학학술정보공동활용체제구축사업.zip>>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의학연구정보센터. 2004. “국내 의학 저널 원문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 관련 회의 자료” 2004.5.27 [공지사항 첨부파일] [cited 2005.7.28] <<http://www.medic.or.kr/Down/Bo>

웹 문 서³⁸⁾

-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2004. 알려드립니다. [cited 2004.6.23] <http://www.kamje.or.kr/notice_20040611.html>
-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2004. 의학학술지 원문 DB 공동 활용체제 구축에 관한 본회의 입장. 공문자료. [cited 2004.6.23] <<http://www.kamje.or.kr/newsletter>

38) 아래 정리된 웹문서들은 본 논문의 중요한 연구자료로 활용되어 별도로 정리한다.

- ardNotice/의학학술정보공동활용체제구축사업.zip>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4년도 국가학술연구DB 구축사업(4차) 참여 신청(의학)”[공지사항]. 2004.5.24. [cited 2005. 7.28] <http://www.notice/notice__view.jsp?id=3826&field=subject&field__value=&page=6>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4. “의학학술정보 공동 활용체제 구축 사업 설명회.” 2004. 6. [공지사항 첨부파일] [cited 2005.7.28] <<http://www.medic.or.kr/Down/BoardNotice/설명회안내.hwp>>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5. 2004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2005. 3. 23 [cited 2005.8.2] <<http://www.keris.or.kr/management/minfo.jsp>>
- 허선. 2004.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통합 정보 유통 현황 및 저작권. [cited 2004.6.23] <<http://www.kamje.or.kr/newsletter/의학학술지정보유통및저작권.hwp>>

K C I